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방 회 정[†] 조 혜 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자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들의 성 고정관념 점수가 여성들보다 높았고 이런 현상은 자아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지만 자아해석은 매우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효과는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나타나,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는 탈동일시 경향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역할 영역에서 남성은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외모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능력영역에서는 남성들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더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탈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처방적인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고정관념 고-저 집단을 나누어 자아해석을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자아해석이 덜 고정형적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성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이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더 많이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그 수혜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의 자아해석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쳐, 거부되기도 하지만, 자아에 반영되고 실천되어 성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주요어 : 성 고정관념, 자아해석, 고정관념 활성화, 탈 동일시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2-74-HM1016).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여성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방 회 정,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우리의 자아해석이 주관적이며 내성(introspection)에 의해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는 반성적 의식경험이라고 할지라도(Baumeister, 1999) 자아는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 비교하며, 사회적 평가를 반영하면서 판단되는 것이다. W. James가 사회적 자아를 강조한 이후로, Cooley, Mead 등 많은 학자들이 자아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자아란 의미가 없고,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자아라고 보아왔다.

자기지식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Higgins(1996)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self digest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의 정보들은 '세계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아나 주체성이 사회나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주의 이론과 자아의 다원주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에서는 항상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자아는 없고, 자아는 사회적 맥락과 사회교환, 그리고 그 매체인 담론 내에서 구성된다고 본다(Bohan, 2002).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사회나 공동체가 구성한 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개인에게 표현되고 전달되면서 그 개인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 Butler (1993, 1997)에 따르면 "나"가 존재하기 이전에 담론이 존재하고 "나"는 담론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나"는 이름이 불려지고 타인에 의해 언급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인지함으로써만(being recognizable)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 사회 속에 살면서 자신이 속한 범주를 중심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명명하고 어

떤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가도 자아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범주들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주인 성별 범주에 대해서 사회가 구성한 표상인 성 고정관념이 남녀의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 다중자아이론에서는 개인은 통합되고 단일한 하나의 자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아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또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자아경험이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Rosenberg, 1997; Ashmore & Jussim, 1997). Kihlstrom과 Cantor (1984)는 자아표상은 상황마다 다른 신념을 표상하는 맥락특수적 자아개념의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Markus(1977)와 Fiske와 Taylor(1991)는 자아표상은 여러 영역의 자기 스키마로 이루어진 스키마로 구성된 다중적인 연합망 체계로 보았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자아는 다중적인 자아의 어떤 측면이 활성화되었는가와 관련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자아를 개인적 자아, 관계적 자아, 집합적 자아로 나누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역할과 특성이 요구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자아가 활성화된다고 본다(Sedikides & Brewer, 2001). 예를 들어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독특한 개인적 자아가 활성화되지만, 학부모로 학교에 갔을 때에는 어머니로서의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되고, 국제 경기를 보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집합적 자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자아의 측면이 활성화될 것이다.

자아해석이 상황과 역할, 그리고 사회와 타인의 평가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되기

나 일부 측면만이 강조된다면, 왜곡된 사회적인 평가나 편견, 고정관념은 개인의 자아해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기대가 다르고 남녀에게 제공되는 기회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남성과 여성의 자아해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독특한 개인이 특정 시점과 상황에서의 경험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적인 기대는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해석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고정관념을 실현하여 행동하는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고, 그러한 결과는 실제로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주고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르는 자아해석의 변화과정을 밝히는 것은 자기이행적 예언효과와 기저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남녀가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개인의 자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 고정관념

사회가 인권을 중시하고 여러가지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변하지 않고 강하게 유지되며 빈번하게 강요되는 고정관념이 성 고정관념이다. 성별은 이분법적이고 현저한 범주일 뿐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아기부터 성별지식을 습득하면서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내면

화한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가 소지한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에 대한 믿음의 집합으로서(Deaux & LaFrance, 1998), 그 타당성과 진위와는 상관없이 남녀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시켜 추론하도록 만든다(Ashmore, 1987). 성 고정관념은 성별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며, 다른 신념체계, 특히 성 정체성이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어 왔다(Kohlberg, 1966; Stroms, 1979; Deaux & LaFrance, 1998). 특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과는 달리 기술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처방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Fiske, 1998), 여성과 남성은 어릴 때부터 성 고정관념에 맞추어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절(accommodation)하며 자아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기술적 고정관념은 그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의 행동과 능력, 선호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이미지에 맞추어야 하는 압력을 받는 것으로, 마음속의 기준(anchor)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처방적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작동하는 울타리(fence)로 작용하여 사회적 통제의 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Fiske, 1993). 특히 여성들은 파워구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은 여성에게 더 처방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되어 왔다(Fiske, 1998).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자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속력을 가지며 실제적인 남녀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며, 그 기제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들이 주장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의 도구적인 특성과 여성의 표현적인 특성, 또는 남성의

행위주도성과 여성의 공동체성으로 요약되어왔고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다(Spence & Buckner, 2000). 그러나 이러한 성격특성 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성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으로 제안되고 검증되어 왔다. Deaux와 Lewis(1984)는 성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으로 특성, 역할, 직업, 신체적 특징을 밝히고, 이들 특징들이 서로 연합된 동질적인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특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여성적 신체특성을 갖는 개인을 보면 그는 여성적 직업을 갖고, 여성적 역할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Deaux 와 LaFrance (1998)는 여기에 정서적 특성과 능력요인을 첨가시켰다. 그러나 한편 Eckes(1994)는 고정관념의 구성요인을 성격특성, 태도, 신념, 외현행동과 행동적 선호, 외모라고 밝히면서, 이들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차원 분석에서는 더 포괄적인 차원을 제안한다. Ashmore와 동료들(1987)은 다차원 분석결과 성 고정관념은 평가와 능력의 두 직교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능력차원에는 지배-복종, 통제-피지배가 포함되고 남성은 지배와 통제, 여성은 복종과 피지배와 연결되며, 평가차원인 좋다(good)-나쁘다(bad)에서는 남녀차이가 지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Glick과 Fiske(1999)는 평가차원 대신에 호감차원을 제안한다.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두 차원을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호감(likability)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때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반면, 호감은 집단간 경쟁이나 협동이나에 따라 결정된다(Fiske, 1998). 성 고정관념은 전형적인 여성은 착하지만 무능한 집단으로, 남성은 유능하지만, 여성보다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선호한다. Eagly와 Madinic(1993)은 의미차이척도와 성 고정관념의 자유반응 측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좋아하는 집단으로 평가됨을 발견하고, 이를 "women are wonderful effect"라고 한다. 그러나 호감차원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처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처럼 지배집단과 종속집단이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일 때,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능력차원에서의 우위성과 자신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강조하면서, 종속집단에 대해 호감차원에서 처방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Fiske, 1998).

이와 같이 성 고정관념의 표상은 매우 복잡한 구성체임을 알 수 있다. 각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성 고정관념의 다양한 요인들은 요약해 보자면 신체특성, 역할, 성격, 능력, 행동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들은 크게 처방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특성,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의 차원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각 요소들과 각 차원들은 개인의 자아해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일반적 경향

범주화는 인간정보처리의 필수적 과정이다. 범주화는 인간의 제한적인 정신적 용량을 보존하면서 사회적 환경의 복잡성을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다. 고정관념은 범주화의 부산물로서,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고정관념 정보를 적용하여 정보처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어떤 개인을 범주화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필요가 없이 그가 속한 집단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켜 빠르고 자동적으로 성향을 추론하는 하향(top down) 정보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방희정, 1996; 조혜자, 2002). 어떤 개인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그 순간 기억에서 접근된 지식이 범주와 맞는 정도에 따른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대상의 다양한 범주 중 특정 범주로 범주화하게 된다.

성별은 인간을 분류하는 여러 범주들 중에서도 일차적이고 가장 현저한 범주이다(Fiske, 1998). 따라서 사람들은 인생초기부터 성별을 배우고 성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별자극에 부착된 성 고정관념을 반복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반면 성 고정관념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나 여성주의 관점과 같은 신념은 뒤늦게 의식적인 교육이나 판단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이런 발달과정의 결과로 성 고정관념은 개인 신념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며 의식적인 자각 이전 수준부터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개인의 인상형성과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어 왔다(Lepore & Brown, 1997).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정보처리의 초기단계인 선택적 주의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 고정관념의 렌즈를 착용하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별 범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범주 가능성은 금지하는 편향효과가 일어나게 되고(Bodenhausen & Macrae, 1998),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다르게 지각하게 만든다. Banaji 등(1993)은 중립적인 자극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녀의 의존성, 공격성 평정에 차이가 없지만, 성 고정관념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자는 공격적, 여자는 의존적이라고 평정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대상인물의 행동이나 특성을 해석할 때 상관 착각(illusory correlation)이 일어나 우연히 일어난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행동은 성격특성과 연결시켜 과대해석하고,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행동은 무시하게 만든다(Hamilton & Gifford, 2000). 또한 편향된 귀인을 하게 만들어, 여성의 성공에 대해서는 운이나 노력에 귀인하고 남성의 성공에 대

해서는 능력에 귀인하는 한편 실패에 대해서는 반대로 귀인하게 만든다(Yoder, 1999).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기억에도 편향을 일으켜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기억편향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성 고정관념의 기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고 수정하여 기억하는 기대일치성 현상을 일으킨다(Rothbart, 1981). 그리고 성 고정관념은 남녀 작품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동일 작품에 대해서도 남성의 작품이라고 믿는 경우와 여성의 작품이라고 믿는 경우 평가가 달라진다(Biernat & Kobrynowicz, 1999).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의 효과를 실생활과 연결시켜 연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Rudman과 Borgida(1995)는 남자 피험자들에게 일련의 실제 TV 광고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에, 단어 판단과 여성을 면담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중 여성을 성 대상화하는 광고를 점화자극으로 보았던 남자들의 경우 중립자극을 보았던 남자들에 비해 성차별적 단어(예. bimbo)에 더 빨리 반응했을 뿐 아니라 연구조교로 신청한 여성들을 면담하면서 성희롱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미디어의 광고가 시청자들의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연구들은 주로 지각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정보처리를 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성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Oyserman & Swim, 2001).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타인에 대한 평정이나 기억,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이 성

고정관념의 대상이 될 때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유아초기부터 아기들은 자신의 성별을 알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적용하게 된다. 인생 초기 성별을 배우면서 성-일치 지식은 자아로 통합되고,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잘 기억하면서 자신도 그에 맞추어 규정하게 된다(Bem, 1993). 자아를 기억의 연합망의 일종으로 보는 자아도식이론에서는 성별은 자아도식의 중심에 있고 연결강도가 강하며,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Higgins, 1996). Hannover(1999)는 성 고정관념의 핵심차원에 속하는 성-일치 정보가 개인의 자아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어떤 성격특성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특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했을 때, 성-일치 특성들에 대한 판단이 성-불일치 특성의 판단보다 유의미하게 빠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성-일치 자기지식이 성-불일치 자기지식보다 자아의 중심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마음에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성 고정관념을 자신의 자아에 통합시키고 중심에 놓는 것은 성 유형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된다. Eccles 등(1999)의 모델에 따르면 행동선택은 개인이 갖는 성취기대로 예언가능하고, 이는 과제 난이도에 대한 지각과 자기능력 지각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들은 종단연구를 통해 고정형적인 남성영역(수학)과 여성영역(언어)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적인 믿음이 아동의 자기지각과 성취기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특히 부모의 지각은 아동의 점수보다는 아동의 신념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

은 여성과 남성에게 고정관념적인 기대를 하고, 고정관념에 맞는 역할과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고, 성 고정관념을 자기개념으로 수용하게 될 수 있다(김혜숙, 2002).

한편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개인의 과제수행에 즉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annover와 Beyers(1999)의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을 점화했을 때, 성 일치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성공능력의 확신의 정도가 높지만 성 불일치 과제에서는 확신이 없어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Spencer 등(1999)은 수학을 잘 하는 남녀에게 어려운 수학시험을 치루게 하면서, '성차는 없다'는 정보를 먼저 제공받은 집단에서는 시험결과에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차가 있다'는 정보를 먼저 받은 집단에서는 남녀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했다. 즉 성차를 강조하는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여성의 수행 결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Steele과 Aronson(1995)은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지각하고 자신이 고정관념을 확인해줄 수도 있다고 느끼면서 갖는 불안이 고정관념 관련 차원의 개인 수행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는 고정관념 확인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흑인은 지능이 낮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언어검사가 지적 능력을 재는 것이라고 믿을 때 수행이 나빠졌다. 또한 여성들도 과학과 수학을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검사가 진단검사라고 믿을 때 수학점수가 낮아졌고, 특히 남자들 속에서 자기 혼자만 여자일 때(solo status) 더 점수가 낮아졌다(Sekaquaptewa & Thompson, 2002).

그러나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는 상황일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잇점으로 수행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Sekaquaptewa 등(2002)은 백인여성이 남성들 속에서 혼자 여성인 경우 수행이 나빠지지만, 흑인여성들 속에서 혼자 백인 여성인 경우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수행은 나빠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즉 백인여성은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불리하지만, 인종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높은지위의 집단으로 잇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과제수행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인들은 수학능력이 우수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별보다는 인종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수학시험을 보았을 때 더 점수가 떨어졌다. 즉 긍정적 고정관념 확인의 압력 역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인시키지 않으려는 압력과 유사하게 작용하였다(Cheryan 등, 2000).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때로는 고정관념 위협 현상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성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성 고정관념이 어떻게 행동과 수행을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성 유형화와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낳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고정관념 위협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개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자아해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 고정관념의 촉진효과와 억압효과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자아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범주화의 자동적 특성에 성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성별이 자아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성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자아해석을 할 때 자신을 고정형적으로 해석하는 촉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고정관념에 유리한 집단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Fiske와 Taylor(1991)는 고정관념이 인지적 경제성 때문에 정보처리의 지름길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어떤 목적과 동기에 의해 정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동기화된 전략가로서 고정관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노력이 드는 개별화된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다고 할지라도 고정관념을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식적인 노력으로 수정하여 오히려 억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이라도 그것의 잘못됨을 지각하고 반대하는 신념을 갖게 되면, 통제적인 과정을 통해 고정관념을 무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Fiske, 1998).

또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고정관념을 적용하지만,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성있는 독특한 개인들로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범주적 처리를 하기 보다는 개별화된 처리를 하게 된다고 지적되어 왔다(Koomen & Dijker, 1997; Nelson, 2002). 그렇다면 자아해석을 하는 상황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성 고정관념적인 자아해석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정관념에서 불리한 집단은 고정관념의 잘못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은 자아해석에 어떤 형태로 작용할 것인가? 성 고정관념과 자아를 도식

으로 이해하는 이론들은, 크게 두가지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단일차원 모형(uni-dimensional model)에서는 모든 젠더관련 역할과 특성들에 대한 도식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아와 타인에 적용된다고 본다(Bem, 1981). 이 입장에서는 성 도식화된 사람, 즉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과 사물을 조직할 때에도 성별로 조직한다고 본다. 반면 Spence의 다차원 모형(multiplicity model)에서는 성 고정관념의 다양한 내용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또한 성 고정관념과 성 행동, 성 정체성 등은 각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Spence & Buckner, 2000). 이 입장에서는 성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그리고 성 고정관념의 각 영역 내용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관념의 내용이 다양하고 각기 다른 차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신념 역시 내용에 따라, 차원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고, 통제적인 과정은 그에 따라 작동할 수 있다. 고정관념 위협 이론(Steele & Aronson, 1995)에 따르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자들은 자기 집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를 그 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며 사회적 정체감을 갖지만, 자기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를 탈동일시(disidentify)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Nelson, 2002). 즉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처방적인 내용인지 기술적인 내용인지에 따라 자아해석에 고정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탈동일시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Bem(1981)의 지적처럼,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자아해석의 반응양식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Devine(1989)은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어

떤 대상(흑인)을 만났을 때 모두 자동적으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저 편견인은 그 효과를 금지하는 통제적인 과정을 사용함을 밝혔다. Fazio 등(1986)도 저 편견인들에게서 의식적 금지가 정교하게 일어남을 보여 주었다. 한편 Nelson(2002)은 고정관념을 동일시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고 동일시인은 자신을 집단과 더 연결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라도 그러하지만, 저 동일시인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특히 집단 이미지가 부정적일 때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1. 의식수준에서의 명시적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개인의 자아해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보다 자아 해석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4. 성 고정관념이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간에 차이가 있는가?
5. 남성과 여성은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에 다르게 작동하는가?
6.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아해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기초조사

남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기술형용사를 평정케 하였다. 형용사는 김영채(1984)

의 400개 형용사 중에서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268개가 사용되었다. 각 형용사들은 여성적/남성적, 긍정/부정, 강/약, 활동적/비활동적 차원에서 각각 7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되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여성적, 남성적, 긍정, 부정적 값이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생 446명(남 233명, 여 213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이들을 비활성화 조건과 활성화 조건에 다음과 같이 할당하였다.

유형	비활성화	성 별		총
		여성	남성	
	활성화	113	111	224
		100	122	222
총		213	233	446

측정도구와 절차

성 고정관념 질문지

Ashmore와 동료들(1987), Deaux & Lewis(1983), Fiske(1998)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성격, 역할, 능력, 행동, 외모의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여성 고정관념과 남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론적 토대에 의해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성 관련 형용사들과 남성 관련 형용사들을 삽입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형용사 선정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성격과 역할, 행동, 능력, 외모의 영역에 처방적, 기술적, 부정적, 긍정적 내용이 들어가도록 배합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6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

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 고정관념 질문지 문항은 남성 고정관념이 34문항, 여성 고정관념이 34문항이었다.

예 : 여성 고정관념:

- 여자는 남자보다 사려깊다(성격-긍정기술).
- 여자는 섀미 많다(성격-부정기술).
- 여자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역할-처방).
- 여자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능력-부정기술).

남성 고정관념

- 남자는 합리적이다(성격-긍정기술).
- 남자는 야만스러운 편이다(성격-부정기술).
-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역할-처방).
- 남자는 여자보다 언어능력이 떨어진다(능력-부정기술).

자아해석 질문지

성 고정관념 질문지를 변형하여, 자아와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아 질문지도 성격과 역할, 행동, 능력, 외모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처방적, 기술적, 부정적, 긍정적 내용이 들어갔으며,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남성용 자아해석 질문지는 남성 고정관념 문항을 변형하였고, 여성용 자아해석 질문지는 여성 고정관념의 문항을 변형하여, 각각의 자아해석 질문지 문항은 34문항이었다.

(예, 여성용: 나는 사려깊은 편이다. 나는 섀미 많은 편이다. 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화 조건

활성화 조건에서는 성 고정관념 문항을 먼저 제시하여 고정관념을 활성화한 후 그와 관련된 자아관련 문항에 반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성 고정관념 문항이 먼저 한 문항 나온 다음 그와 짝지워진 자아해석 문항이 나오고, 또 다른 성 고정관념 문항이 나온 다음 그와 짝지워진 자아해석 문항이 나오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순서를 통제하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 고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지시문을 넣었다.

비활성화 조건에서는 성 고정관념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아해석을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먼저 자아해석 문항들이 모두 제시된 후, 성 고정관념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화 조건은 문항 배열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였다.

절차

검사는 소집단으로 실시되었고, 남성과 여성에게 성 고정관념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아해석 검사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화 조건에 할당된 집단에게 각기 다른 검사가 제공되었다. 활성화 조건은 고정관념 문항 다음에 자아관련 문항에 반응하도록 순서대로 반응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비활성화 조건은 자아해석검사 이후 성고정관념 검사가 실시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이, 국적, 출신지,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의 카이 검증결과, 남녀 모두 비활성화 조건과 활성화 조건에서 $p > .05$ 로, 두 조건은 동질적인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성 고정관념이나 자아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독립변인: 나이, 국적, 성별, 출신지,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종속변인: 성 고정관념 총점, 자아해석 총점). 그 결과 사회경제적 점수는 여성 고정관념($t = -2.31, p < .05$)과 남성 고정관념($t = -2.55, p < .05$), 자아해석($t = -2.86, p < .05$)에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고,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통계처리를 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변인으로 지정하였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 α)

타당도

고정관념 척도는 이론적 근거와 기초조사를 통해 평정된 형용사를 이용해 제작되었고, 이를 변형하여 자아검사가 만들어졌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6명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는 문항들을 반복 검증하였으며, 18인으로 구성된 연구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신뢰도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남녀 고정관념의 경우 .68-.96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아해석의 경우

표 1.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자아해석	남성고정관념	여성고정관념
전체	.85	.94	.96
성격	.71	.83	.89
역할	.84	.91	.90
능력	.46	.68	.72
행동	.60	.75	.87
외모	.76	.88	.93

고정관념보다는 낮으나 능력 요인을 빼고는 .60-.85의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자아해석의 일치도가 고정관념보다 낮은 것은 각 개인의 자아해석은 보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특히 능력 요인의 자아해석은 일치도가 낮는데, 이는 능력 문항들이 각각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과 해석은 다른 요인보다 더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남성 고정관념과 여성 고정관념에 대한 남녀차이

남녀가 가지고 있는 남성 고정관념과 여성 고정관념을 비교해 본 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남성과 여성의 점수는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성 고정관념이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 고정관념의 능력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

표 2. 남성 고정관념과 여성 고정관념의 남녀차이

	여성		남성		t값
	평균	SD	평균	SD	
여성고정관념 전체	3.15	(.77)	3.97	(.71)	-11.69 ***
성격	3.20	(.81)	3.92	(.75)	-9.80 ***
역할	2.94	(1.03)	3.96	(1.01)	-10.63 ***
능력	3.37	(.72)	3.89	(.67)	-7.83 ***
행동	2.93	(.90)	3.81	(.84)	-10.67 ***
외모	3.33	(1.17)	4.28	(1.07)	-8.98 ***
처방 문항	3.08	(.93)	4.14	(.87)	-12.46 ***
기술 문항	3.23	(.70)	3.77	(.65)	-8.44 ***
부정기술	3.00	(.84)	3.65	(.78)	-8.50 ***
긍정기술	3.58	(.77)	3.95	(.73)	-5.25 ***
남성고정관념 전체	3.63	(.68)	4.03	(.58)	-6.66 ***
성격	3.56	(.68)	3.96	(.60)	-6.65 ***
역할	4.06	(1.12)	4.81	(.84)	-8.12 ***
능력	3.54	(.70)	3.56	(.70)	-.36
행동	3.49	(.80)	3.87	(.75)	-5.14 ***
외모	3.50	(1.05)	3.92	(.91)	-4.56 ***
처방 문항	3.75	(.86)	4.48	(.69)	-9.90 ***
기술 문항	3.46	(.64)	3.52	(.58)	-.94
부정기술	2.93	(.90)	3.81	(.84)	-10.67 ***
긍정기술	3.53	(.73)	4.06	(.69)	-7.94 ***

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남성과 여성 고정관념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의 전 영역이 비슷했지만,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인 남성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특히 높았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여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았지만,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서는 역할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고,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남성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 영역이 비슷했지만,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남성들은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들의 경우 남성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은 상당부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역할과 행동의 고정관념은 거부하면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 고정관념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관념 활성화가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가 자아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점수와 각 영역별 자아해석 점수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해석의 점수는 높을수록 성 고정형적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것이 된다. 전반적으로 표 3에서 보여주는 바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성 고정관념

표 3. 고정관념 활성화 유무에 따르는 남녀의 자아해석의 양상과 차이검증

	유형 (활성화유무)				F값		
	비활성화		활성화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여	남	여	남	성별	활성화	성별*활성화
자아해석 전체	3.81 (.52)	4.03 (.39)	3.62 (.52)	4.06 (.42)	55.64 ***	2.80	6.12 *
성격	4.09 (.59)	3.92 (.58)	3.82 (.65)	3.94 (.47)	.27	4.98 *	6.53 *
역할	3.92 (.94)	5.23 (.59)	3.74 (.92)	5.29 (.65)	370.05 ***	.59	2.84
능력	3.86 (.78)	3.26 (.67)	3.67 (.61)	3.52 (.70)	32.65 ***	.31	10.99 ***
행동	3.55 (.72)	3.76 (.61)	3.32 (.65)	3.69 (.68)	20.30 ***	5.48 *	1.49
외모	4.71 (.80)	4.70 (.79)	4.21 (.99)	4.49 (.63)	3.20	21.80 ***	3.54
처방문항	4.18 (.69)	4.93 (.56)	3.95 (.65)	4.86 (.52)	207.02 ***	7.33 **	1.75
기술문항	3.84 (.54)	3.23 (.40)	3.59 (.51)	3.34 (.50)	85.07 ***	2.24	14.96 ***
부정기술	3.60 (.72)	3.07 (.59)	3.26 (.64)	3.22 (.70)	20.03 ***	2.07	14.98 ***
긍정기술	4.08 (.63)	3.38 (.48)	3.91 (.63)	3.45 (.49)	119.08 ***	.97	5.01 *

* $p < .05$, ** $p < .01$, *** $p < .001$

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해석의 전체점수에서도 성별 주효과가 매우 의미있게 나타나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신을 더 고정형적으로 해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 남성들은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남성고정관념 점수와 활성화집단과 비활성화 집단의 자아해석 점수가 차이나지 않지만, 여성들의 경우 여성 고정관념 점수는 낮는데 비해 자아해석 점수는 높아, 자아해석을 매우 고정형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거부하면서도 자아에는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과 활성화 조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가 자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남녀의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에 따르는 자아 해석양상을 영역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효과는 역할, 능력, 행동영역에서 나타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그중 역할의 자아해석에서 남녀 차이가 가장 컸다. 고정관념 활성화효과는 행동, 외모, 성격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행동과 외모에 대한 자아해석 점수가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성별과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능력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능력에 대한 자아해석을 낮추었지만, 남성들의 경우 오히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을 높였기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의 활성화 여부가 자아해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리해서 처리를 해 본 결과, 처방적인 내용에서는 성별 주효과와 활성화 주효과는 나왔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나오지 않았고, 기술적인 내용에서는 성별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왔다. 그림 3은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자아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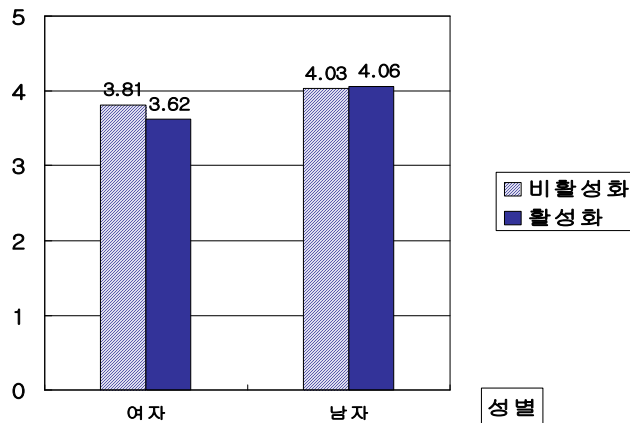


그림 1. 활성화-비활성화 조건에 따른 남녀 집단의 자아해석(전체평균)

자아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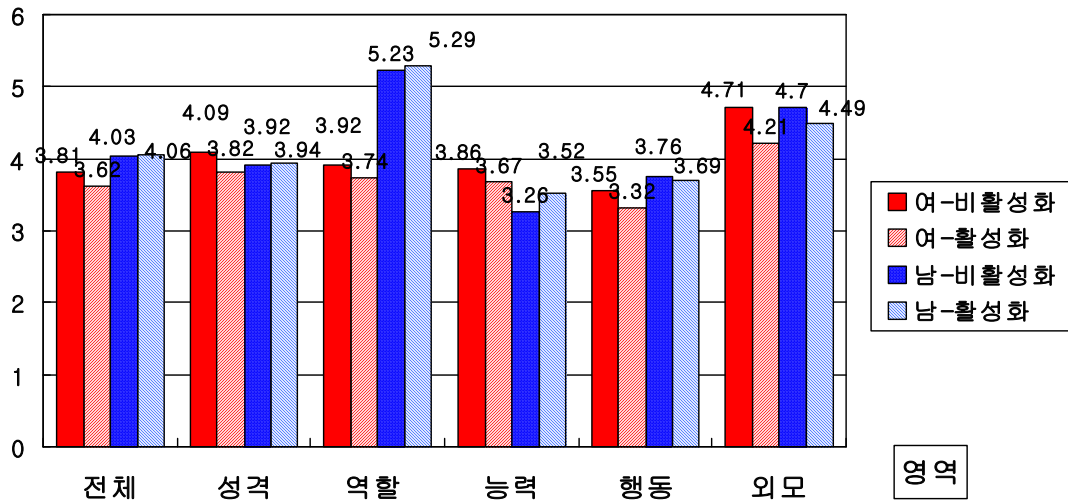


그림 2. 활성화, 비활성화 조건에 따른 남녀 집단의 자아해석 (영역별)

자아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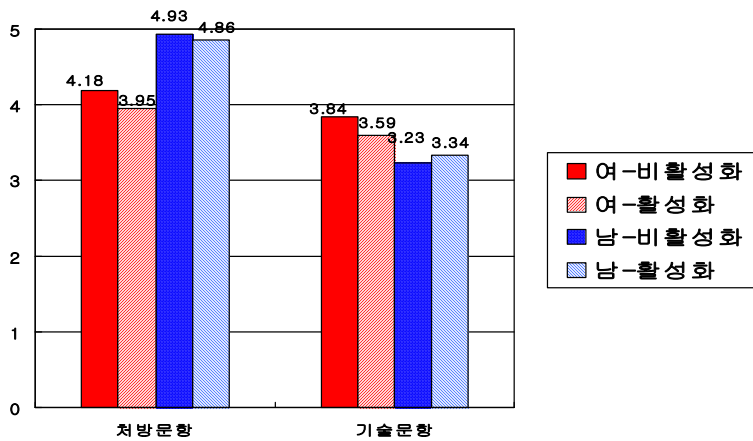


그림 3. 처방적 내용과 기술적 내용에 대한 남녀 집단의 자아해석

그림 3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자아해석이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처방적인 내용에서 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처방적인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남성들은 “남자는 어떠한 야 한다”는 사회적인 처방을 더 많이 자아에 수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문항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했다.

한편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긍정성 효과 때문에 성 고정관념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얼마나 자아에 수용하여 해석하며, 고정관념 활성화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정기술과 긍정기술 문항들을 뽑아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기술과 긍정기술에서는 모두 성별 주효과가 나타나고, 성별과 활성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여 자아해석을 하고 있지만, 여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그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억제한데 비해, 남성들은 남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자아해석을 더 고정형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 고정관념 지식을 어릴 때부터 습득하고 그 지식을 자아에 통합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동일한 정도로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

이 높은 남녀와 낮은 남녀는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어떻게 자아해석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성 고정관념 점수가 상위 30 퍼센타일과 하위 30 퍼센타일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활성화 조건과 비활성화 조건에 할당되었던 남녀를 표 4와 같이 각각 25명씩 무선 표집하여, 여성 100명, 남성 100명의 자아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4.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피험자 수

	여성		남성	
	저집단	고집단	저집단	고집단
활성화	25	25	25	25
비활성화	25	25	25	25

표 5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과 낮은 여성들이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에 따라 자아해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고정관념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 고정관념 고 집단은 고정관념 저 집단에 비해 자아해석도 고정형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활성화 효과도 유의하여, 성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자아해석을 고정형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더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 고 집단보다 저 집단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일수록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지만,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더 억압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 양상을 영역별로 보았을 때, 능력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고정관념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 고정관념 고 집단은 저집단에 비해 능력영역

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아해석을 더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활성화 주효과도 능력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덜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였다. 능력영역의 자아해석은 고정관념의 수준이나 활성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은 독특하고 개별적이며 고정된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행동과 외모 영역에서 나타나,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더 억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모에 대한 자아해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고정형적이었다.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여성들의 자아해석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여성들은 고정관념이 높은 낮은 기술적인 내용의 고정관념보다는 처방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면서 자아해석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더 그러하였다. 고정관념 활성화 주효과도 나타나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두 집단 모두 고정형적인 자아해석 경향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내용의 문항들보다는 더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고 있었다.

기술적인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문항에서는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의 주 효과뿐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고정관념 활성화 시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술 문항 중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에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경우 고정관념 저 집단은 그와 관련된 자아해석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성의 고정관념 수준과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른 자아해석 양상과 차이검증

	유형 (활성화유무)				F값		
	비활성화		활성화		주효과 수준(고/저)	활성화	상호작용 효과 수준*활성화
	저	고	저	고			
자아해석 전체	3.82 (.44)	4.19 (.36)	3.16 (.51)	3.98 (.34)	43.28 ***	29.00 ***	8.19 **
성격	3.91 (.58)	4.33 (.40)	3.37 (.96)	4.13 (.56)	25.26 ***	12.09 ***	2.77
역할	3.70 (.63)	4.46 (.74)	3.09 (.93)	4.10 (.75)	26.69 ***	8.05 **	.45
능력	3.87 (.90)	3.91 (.78)	3.43 (.78)	3.87 (.61)	1.09	2.74	2.29
행동	3.32 (.52)	3.82 (.68)	2.67 (.54)	3.68 (.43)	44.30 ***	12.77 ***	5.30 *
외모	4.89 (.85)	5.01 (.57)	3.58 (1.16)	4.69 (.83)	9.77 **	22.12 ***	8.50 **
처방문항	4.04 (.69)	4.55 (.46)	3.44 (.57)	4.27 (.50)	33.22 ***	15.29 ***	1.98
기술문항	3.71 (.40)	3.94 (.54)	3.05 (.50)	3.84 (.51)	22.64 ***	19.24 ***	9.56 **
긍정기술	4.00 (.59)	4.24 (.72)	3.61 (.70)	4.01 (.64)	22.90 ***	14.97 ***	1.12
부정기술	3.52 (.48)	3.75 (.63)	2.67 (.49)	3.73 (.63)	7.33 **	11.77 ***	10.41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남성의 고정관념 수준과 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른 자아해석 양상과 차이검증

	유형 (활성화유무)				F값		
	비활성화		활성화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저	고	저	고	수준(고/저)	활성화	수준*활성화
자아해석 전체	3.76 (.34)	4.33 (.32)	3.68 (.20)	4.45 (.35)	117.71 ***	.10	2.45
성격	3.79 (.67)	4.18 (.56)	3.76 (.38)	4.17 (.38)	15.50 ***	.04	.92
역할	5.09 (.74)	5.44 (.42)	5.10 (.41)	5.64 (.48)	17.02 ***	.95	.81
능력	3.09 (.59)	3.24 (.79)	3.25 (.58)	3.84 (.61)	8.05 **	8.64 **	2.89
행동	3.65 (.59)	3.96 (.74)	3.19 (.43)	3.98 (.79)	17.74 ***	2.75	3.29
외모	4.46 (.90)	5.03 (.79)	4.10 (.55)	4.87 (.54)	22.73 ***	3.36	.50
처방문항	4.75 (.72)	5.17 (.54)	4.60 (.32)	5.19 (.42)	23.69 ***	.44	.71
기술문항	3.10 (.39)	3.67 (.44)	3.06 (.40)	3.59 (.46)	22.38 ***	1.14	2.35
부정기술	2.99 (.58)	3.24 (.73)	2.74 (.59)	3.53 (.71)	15.64 ***	.04	4.17 *
긍정기술	3.21 (.42)	3.50 (.47)	3.37 (.43)	3.65 (.41)	10.86 ***	3.24	.01

* $p < .05$, ** $p < .01$, *** $p < .001$

다. 반면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내용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 모두 부정적인 내용에 비해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내용일지라도 두 집단이 동일한 정도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 활성화된 경우 더 억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6은 남성들의 자료로, 성 고정관념이 높은 남성들과 낮은 남성들이 고정관념 활성화 여부에 따라 자아해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고정관념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 고정관념 고 집단은 고정관념 저 집단에 비해 자아해석도 고정형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영역별로 보았을 때에도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남성들의 경우에는 고정관념 활성화 효

과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능력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의 상호작용도 전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들의 영역별 자아해석 결과를 여성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능력 영역의 차이이다. 여성들의 경우 다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던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와 활성화 효과가 능력영역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들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가 능력 영역에서만 나타난 점이다. 그리고 남성들의 능력영역의 고정관념 활성화 효과는 고정관념적인 자아해석의 억제가 아니라 촉진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남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피해자이기 보다는 수혜자이고, 특히 능력과 관련하여 여성들과는 달리 고정관념의 잇점이

있으므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을 순간 자아에 편입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의 활성화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해석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성들은 고정관념이 높은 낮은 기술적인 내용의 고정관념보다는 처방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면서 자아해석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더 그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경우에서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여성과는 달리 고정관념 활성화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성들도 기술적인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문항 중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보다 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었고, 고정관념을 자아에 수용하는 정도는 고정관념 고 집단이 유의미하게 강했지만, 고정관념 활성화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술에서는 고정관념 수준과 활성화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고정관념 저 집단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자아해석하는 경향이 더 낮아지지만, 고정관념 고 집단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은 자아해석시 고정관념의 긍정적인 내용은 수용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 고정관념 고 집단은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은

어떠하며,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 자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고정관념이 높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았으며, 자아해석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은 성 고정관념이 높고 성 고정관념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다(조혜자, 2002).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지만,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이는 사람들이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적용하고 자기 집단은 독특한 개인들의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높다는 이론을 지지한다(Koomen & Dijker, 1997).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여성에게만 나타나고 남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동일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점수보다 자아해석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 여성 고정관념은 거부하면서도 자아해석을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검사 이후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여성 전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을 스스로 실천하고 자아에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기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김선희(2002)는 '문화의 자연화'라고 부르고 있다. 즉 여성들이 자아해석에 반영한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은 여성들의 자연 본래적인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특성이 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여성들의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들이 자아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면,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상황이나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나 변함없이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활성화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고정관념적인 자아해석이 억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정관념 활성화의 효과는 여성들에게는 나타나지만,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여성들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에 관계없이 능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여성들은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자신의 특성이라고 자동적으로 수용하지만,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고정관념인지를 지각하면서 자아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억압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 중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활성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더 자아해석 점수가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주의 관점의 교육을 받고 성 고정관념이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워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여성일수록 여성 고정관념을 탈 동일시하는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해석 양상을 영역별로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영역이 역할영역이었다. 즉 남성들은 남성역할을 자아해석에 강하게 반영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여성역할을 남성에게 비해 강하게 자아해석에 수용하지 않았다. 역할은 사회가 규정해 주는 남성과 여성의 활동영역으로서 남녀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Eagly(1987)는 남성성과 여성성 특성이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결과된 특성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Fiske(1998)은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무권력을 야기하고, 남성의 역할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이 여성 고정관념적인 역할을 자아해석에 수용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무권력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들은 남성 고정관념적인 역할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고정관념을 반영한 자아해석을 하는 영역은 외모영역이었다.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에 남녀 모두 억압을 하고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모주의(lookism)의 영향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지 못하며,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Deaux와 Lewis(1984)에 의하면 성 고정관념의 영역중 신체특성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상화(objectification) 이론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의 외모를 화폐가치로 여기고 중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을 외모에 근거해서 평가되는 대상으로 다루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티브리스, 1999).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고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우리나라 젊은이 문화가 '얼짱', '몸짱'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외모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해석의 영역중 성별과 고정관념 활성화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영역은 능력영역이다. 남성의 경우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졌지만, 여성의 경우는 더 낮아졌다. 이 결과는 고정관념 활성화가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 위협으로 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만(Steel & Aronson, 1995), 지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잇점으로 수행이 나빠 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결시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ekaquaptewa et al., 2002). 즉 여성들의 경우 능력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높았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수행 시에는 불안으로 작용하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남성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는 잇점 때문에,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경우 그것을 더욱 수용하여 자신감을 가지며, 오히려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남성과 여성, 또한 인종집단의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 위협 현상은 자아해석양식이 중개변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처방적인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경향성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점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많은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메시지가 파워구조에서 불리한 여성들에게 강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Fiske, 1998).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영역들의 자아해석 점수와 처방적인 내용의 고정관념 점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들 역시

처방적인 내용에서 점수가 높고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들에게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점수는 더 많이 높아, 남성들은 처방적인 고정관념을 여성들보다 더 강하게 자아에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회로서 남성의 역할과 특성을 매우 중시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강요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여성답지 못한 것보다 남성이 남성답지 못할 때 더욱 암묵적인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들은 여성주의 교육으로 의식화되어 있는데 비해,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 고정관념의 처방적인 내용은 개인의 지위나 파워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자아에 쉽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정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즉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자아를 성 고정형적으로 해석하고 낮은 사람일수록 자아해석이 덜 고정형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Bem의 단일차원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은 자아해석도 성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적용하는 양식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동일한 양식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Spence등(2000)의 주장대로 각 영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고정관념의 긍정적인 내용들은 부정적인 내용보다 더 자아에 수용되고 있었고,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내용은 더 억압하여 탈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yserman과 Swim(2001)에 따르면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세계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수동적인 수용자나 피해자로 남지 않고, 완충적인 생활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성 고정관념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영역에 따라 유리한 경우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여 자아에 반영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거부하거나 억압하기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 고정관념은 거부되기도 하지만, 많은 남녀에게 실천되고 자아에 반영되며, 성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성 고정관념의 불리한 대상인 여성과 유리한 대상인 남성이 어떻게 자신을 해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들은 고정관념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려는 억압을 일으킴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밝혀내지 못한 고정관념 위협현상의 중재변인 중의 하나가 자아해석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일상생활에서는 보다 더 암묵적인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의 피해 당사자들은 의식적으로 거부하지도 못하고 자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암묵적인 수준에서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자아와 관련된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인지를 밝혀

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혜숙 (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이화여대 사회과학 연구소 2002년 가을 심포지엄: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조명 (1-16).
- 방희정 (1996). 성 고정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체. 김태련 외, 여성심리, (pp.170- 211).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조혜자 (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심리 이론과 실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티브리스 (히스테리야 역) (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Ashmore, R. & Jussim, L. (Eds.) (1997). *Self and identity*. NY: Oxford.
- Ashmore, R., DelBoca, F., & Wohlers, A. (1987). Gender stereotypes. In R. Ashmore & F. DelBoca(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69-120. London: Academic Press.
- Banaji, M., Hardin, C., & Rothman, A. (1993). Implicit stereotyping in person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272-281.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680-740). NY: McGraw Hill.
- Bem, S. (1993). *The lenses of gender: Transforming the debate on sexual inequality*. New Haven, CT: Yale U. Press.
- Bem, S.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Biernat, M., & Kobrynowicz, D. (1999). A shifting perspective on the complexity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tereotyping.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75-106), Washington DC: APA.
- Bodenhausen, G. V., & Macrae, C. N. (1998). Stereotype activation and inhibition. In R. Wyer, Jr.(Ed.), *Advances in social cognition*(Vol. 11, pp.1-52). Mahwah, NJ: Erlbaum.
- Bohan, J. (2002). Sex differences and/in the self: Classic themes, feminist variations, postmodern challeng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74-88.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Y: Routledge.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Y: Routledge.
- Cheryan, S., & Bodenhausen, G. (2000). When positive stereotypes threaten intellectual performance: The psychological hazards of "model minority" status. *Psychological Science, 11*(5), 399-402.
- Deaux, K., & LaFrance, M. (1998). Gender.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788-827). NY: McGraw Hill.
- Deaux, K., & Lewis,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 M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5, 1-35). John Wiley.
- Eccles, J., Barber. B., & Jozefowicz, D. (1999). Linking gender to educational, occupational, and recreational choices: Applying the Eccles et al. model of achievement-related choices. In W. Swann, J. Langol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53-192), Washington DC: APA.
- Eckes, T. (1994). Features of men, features of women: Assessing stereotypic beliefs about gender subtyp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07-123.
- Fazio, R., Sanbonmatsu, D., Powell, M., & Kardes, F.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6), 621-62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Fiske, S., & Taylor, S. (1991). *Social cognition*(2nd ed.). NY: McGraw-Hill.
- Glick, P., & Fiske, S.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93-222), Washington DC: APA.
- Hamilton, D., & Gifford, R. (2000).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ments. In C. Stangor(Ed.), *Stereotypes and prejudice: Essential readings* (pp. 161-170).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Hannover, B. (1999). Development of the self in gendered context. In Eckes & Trautner(Eds.),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LEA.
- Hannover, B., & Beyers, S. (1999). Self-stereotyping and expectancies for success in sex typed tasks. Unpublished manuscript.
-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pp.133-168), NY: Guilford Press.
- Kihlstrom, J. F., & Cantor, N. (1983).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pp.2-40). NY: Academic Press.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E.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pp.82-173). Stanford, CA: Stanford Uni. Press.
- Koomen, W., & Dijker, A. (1997). Ingroup and outgroup stereotypes and selective process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589-601.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Nelson, T.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 Bacon.
- Oyserman, D., & Swim, J. (2001). Stigma: An insider's 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1-14.
- Rosenberg, S. (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pp. 23-45). NY: Oxford.
- Rothbart, M. (1981). Memory processes and social beliefs. In D.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pp.259-302). Hillsdale, NJ: Erlbaum.
- Rudman, L., & Borgida, E. (1995). The afterglow of construct accessibility: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priming men to view women as sexual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493-517.
- Sedikides, C., & Brewer, M.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Ann Arbor, MI: Psychological Press.
- Sekaquaptewa, D., & Thompson, M. (2002). Solo status, stereotype threat, and performance expectancies: Their effects on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68-74.
- Spence, J. T. & Buckner, C. E. (2000).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44-62.
- Spencer, S., Steele, C., & Quinn, D. (1999). Stereotype threat and women's math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4-28.
- Steele, C., & Aronson, J. (1995). Stereotype threat and the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of African-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97-811.
- Storms (1979). Sex role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s to sex role attributes and sex role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779-1789.
- Yoder, J. (1999). *Women and gender: Transforming psycholog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차원고접수일 : 2004. 1. 24

최종원고접수일 : 2004. 4. 6

Effects of Gender-stereotype Activation in Men's and Women's Self-construal

Hee Jeong Bang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how men's and women's self-construals do change according to gender-stereotype activ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en have stronger gender-stereotypes and construe self more gender-stereotypic way than women. In general, women showed having less gender-stereotype but they construed self more stereotypic way. And the stereotype activation affected only on women to construe self less stereotypic way. Both men and women do accept physical appearance stereotypes more than other domains of gender-stereotype when they construe their selves. Gender-role stereotypes are more accepted by men than women, and gender-stereotypes of ability are more accepted by men but refused by women when stereotype was activated. And men accepted prescriptive gender-stereotype more than women. People of high gender-stereotype group construe self more stereotypic way than those of low stereotype group. But in low gender-stereotype group, women construe self less stereotypic way when stereotype is activated than when not. These results are taken to show, among others, that self-stereotyping of targe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targets are man or woman, and that self stereotyping of an individual contributes to build a mechanism of maintaining gender-stereotype of a socie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key words : gender-stereotype, self-construal, stereotype activation, disidentification